

지역 매아리

유기상 고창군수, 위기의 지역농업 살길 찾아 나서

고창군이 WTO개도국 지위철회를 비롯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농업의 살길 찾기에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민선 7기 농생명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관련 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군에선 유기상 고창군수와 농생명지원과장, 농어촌식품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했고, 지역농협 조합장, 수박·멜론·망고 등 작목반, 복분자주 생산업체 등이 함께했다.

이날 농업인들은 "WTO개도국 지위포기, 공익형 직불제 추진, 기후변화 심화 등 지역 농산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농수축산품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 개발을 연말에 완료해 '친환경 명품' 이미지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임대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팜 도입, 청년·귀농 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인구 고령화의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정읍시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중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에서 매출액 1억 2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에서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로 상향했다.

이미 지원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달 중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약 4억 5000만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신태인·연지·샘고를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지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체류형 관광정읍으로 도약

유진섭 시장, JB연수원 건립 MOU 체결 소감 밝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유진섭 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 시장은 언론인들에게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자유치 홍보 언론인 브리핑



유진섭 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언론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유 시장은 "JB연수원 건립 MOU 체결과 관련 'JB연수원 건립은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정읍시의 패거리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또, '숙박 시설 문제는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며 "JB연수원 건립 MOU를 체결하고 보니 너무나 가슴 뭉클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JB연수원의 사업부지는 약 1만 평으로 사업비 약 500억 원을 투입한다. 연수동과 숙박동, 운동 시설 등 1일 3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가로 올해 9월에 분양된 약 2천평의 숙박 시설 부지도 현재 건축 설계 중이다.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7층, 19 객실 규모의 숙박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착공을 시작해 2021년 준공 예정이다.

또, 수년간 방치되었던 KT&G 연수원도 새로운 투자 의향이 있어 KT&G 본사와 부지 관련 협의중이다.

이번 전북은행 연수원 건립을 시점으로 내장산 잔여부지 분양과 펜션, 상가 시설 부지 건축 등 내장산 리조트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체결된 연수원 건립 부지에 상당한 규모의 숙박동이 건립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자연휴양림과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어드벤처 복합놀이시설 등과 어우

러져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관광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지방세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유 시장은 "이 모든 성과는 그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내장산리조트를 중심으로 정읍시를 세계적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온 정성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해대책 현대화시설로 신속대응체계 구축

부안군은 설해대책 기간(11.15~3.15) 강설시에 대비 신속대응 시설을 구축, 신속한 제설로 도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에 민반의 준비를 했다.

강설시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노후 화되고 협소한 기존 제설장고를 철거하고, 대형장고(300㎡)를 신속하여 신속작업 여건을 조성했으며 모래살

포기 2대 구입, 교반기 설치 등 최신 장비로 교체 완료했다.

군은 지난 11월 13일 제설상황에 대비하여 제설장고, 교반기, 염수통의 기능을 최종 점검했으며, 덤프트럭에 제설기 장착과 모래살포기 탑재 후 소금, 제설용액을 실고 제설 시연을 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관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전 구간 제설을 위해 덤프 6대를 입차하여 총 9대(덤프 7, 1톤트럭 2)로 제설을 시행하며, 염화칼슘, 소금, 제설용액 등 제설용품 76톤을 비축 완료했다.

아울러 읍면 대형트럭 229대에 제설기를 보급하여 마을안길, 진입로 등 소규모 도로에 제설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작업하다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여 전제 트럭에 보험을 가입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추진 '착착'

정읍시가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은 사업비 약 124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만기 이상 안치되는 제2 추모관(봉안당)과 8천기 이상 안치되는 공원형 자연장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의 묘역의 이미지를 벗어나 시민들이 누구나 찾아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정읍시는 전국에서도 장사복지 제도의 선진 지자체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매장시설인 시립묘지(2785기), 화장시설(화로 5기), 봉안당(5752기), 자연장지(4811기)를 모두 갖췄고 있다.

더불어, 서남권 추모공원은 전북지역 정읍·김제·고창·부안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화장시설과

함께 정읍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자연장지와 봉안당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장사 수요에 대비해 지난 2월 증축한 봉안당을 지난달 2층까지 개방해 부부장 부부장 불편을 해소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2015년 개원 후 1일 평균 14건의 화장과 함께 이달 기준 총 2만여 건의 화장이 이루어졌다.

자연장지와 봉안당 이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시 세외수입이 52억 원을 넘었다.

/정읍=김대환기자

사랑의 온도로 '후끈'

정읍시·KBS가 함께한 사랑 나눔 행사 성료 의료 진료 제공·이미용·장수 사진 등 봉사

정읍시와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이재강)이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활동 사랑 나눔 정읍시' 행사가 지난 15일 정읍체육관에서 열렸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농촌 지역을 보듬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읍시립농악단의 농악공연을 시작으로 이현주 세무회계사무소(세무상담), 우석대학교 한방병원(한방치료 및 처방), 전북대학교병원(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약제조), 전주비전대학교(피부관리, 이미용, 장수사진), 평화미주치과(치과진료), 한국건강관리협회(동맥경화검사, 혈압검사) 등 6개의 단체가 무료봉사를 제공했다.

또, 대한직업사 전북지사와 정읍지구협회, 목련라이온스클럽, 코

레일 고속전기사업소 봉사단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특히, 사회공헌문화 확산과 지역 나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유진섭 시장이 참여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에 직접 참여해 따스한 온기를 더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KBS 전주방송총국을 비롯한 참여 단체들에 감사드린다"며 "추운 날씨지만 많은 분이 함께해 마음은 매우 따뜻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 1천여 명이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이·미용과 장수 사진, 세무상담, 배식 등 봉사자들의 마음이 담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 발전과 소득증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읍시가 농업 농촌 발전과 경영 농가의 소득 올리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정읍시청 회의실에서 정읍농협·샘골농협·철보농협과 상호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 허수중 샘골농협 조합장, 권혁빈 철보농협 조합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공무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상호 유대 관계 강화와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유통 구조화립 등 전반적 업무제휴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읍시의 기술지도를 통한 농·축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한우농가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한우 사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농협 유남영 조합장은 "차 산업을 생명 산업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정읍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농협도 앞장서겠다"며

유진섭 시장은 "3사 농협이 손을 맞잡고 농업과 축산업의 지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효과가 배가 되고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며 "어려운 농업·농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3사 농협이 정읍시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 기관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한 지자체 협력사업과 농협과의 간담회 등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 왔다.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sets,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